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9年(檀紀 4322年) 1月 31日 第 138號 [1]

발행인 鄭哲炫	在益明
편집인 申張	錫
인쇄인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참여와 단결로 새해를 연다



### 新年人事会 성황

本会 1989년도 「신년인사회」가 지난 12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임원 및 지부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동국인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鄭哲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이사, 각급지부·지회 임원, 모교의 黃軫經 재단이사장, 민병천 부총장 및 학처장등이 참석해 신년하례를 갖고, 금년에도 東國인의 참여와 단결로 새로운 동국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 東友鼎談

본보는 신년 기획으로 학과동창회장·교수·학생간의 대화의 장으로 「동우정담」을 신설합니다. 그 첫회로 모교 교정에서 만난 경영학과 조희영·차수련 교수, 백정기 동창회장, 홍수의군.

(관련기사 7면)





# '88 서울 올림픽과 버거잭 햄버거의 만남!



햄버거 전문업체 버거잭이  
'88 서울 올림픽 전경기장 매장영업업체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품질우선, 위생우선,  
서어비스 우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버거잭은 대회기간 ('88. 9. 17 ~ 10. 2) 중 올림픽 커플렉스,  
올림픽파크 및 축구예선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전 경기장내 64개 매장에서 양식부문 영업업체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 대회 운영 요원의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해 햄버거 및  
양식세트도 공급합니다.

## ■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접수종: 직접내사 상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7  
버거잭 프리자(본사)

● 대표전화: 545-8201

Burger JACK'S.  
(주)버거잭 코리아







# 소에 손잡고 동국발전 다짐해

## 구립 19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성황리 열려

당했던 모교근로요원들에게도 새해 선물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진통을 겪으면서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단합을 과시한 해」였다고 회고한 뒤 동국산악회의 알포스, 아이거북벽 등정, 동문선수들의 서울올림픽 선전, 각급 단위동우회의 활발한 활동,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동국의 이름을 빛낸 사례들을 일일히 열거하며 「새해에는 동문모두가 손에 손잡고 일치단결하여 동국발전을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李智冠교총장과 黃乾經재단이사장은 각각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좋은 일과 좋은 일로 모두 많았으며 새해에는 동문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만 기를 부처님께 기원한 뒤 새해에도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이 계속 이어질길 당부했다.

**5백여동문 참석한 큰잔치**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인 참여에 뜻있는 결속의 자리로 그 모습을 성실히 가고 있는 이날 「동국인의 밤」 행사는 申益炫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축하폐 및 공로패수여, 하와이支會회기전달, 모교근로요원 선물증정, 회장인사, 총장·이사장 축사, 캐월단, 교과성장의 순서로 본행사를 마치고 2부연회 순서로 축하선물증정, 행운권수첨 등을 진행했다.

이날 東國을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축하폐 및 공로패수여 순서에서는 세종대총장에 취임한 李錦範(67) 등 11명에 대해 축하폐가, 본회와 지역 발전에 푸어온 崔慶植(67) 등 19명에 대해 공로패가 각각 전달됐다.

### 東國을 빛낸 동문에 축하폐

이어 지난해 창립된 하와이지회의 회기를 鄭在哲회장이 李真月(84) 하와이지회 총무에게 전달하고 동우회의 발전을 격려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모교발전에 목숨헌 그일 익을 담겼다.

**모교 근로요원에 선물증정**  
이어 참석한 동문들의 우渥와 같은 박수속에 축하케이트를 절단하고 교과성장으로 1부행사를 마무리지었다.

2부 연회순서에서는 1백여



명의 동문과 지회에서 협찬하여 마련한 행운상품을 추첨하여 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학생과 축하의 박수로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행사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우배·科友·恩師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풍경을 모습으로 기록해 참석한 동문 모두를 훈훈하게 했다.

### 행운상품 추첨

한편, 이날 행운상품추첨에서는 멀리 부산에서 몰려와 참석한 金明振(55·법학) 등문이 특등에 당첨되어 많은 동문들의 축하와 부러움 속에 통증된다. 중T V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 <축하폐수여 동문>

◇李錦範(54 국문) 세종대학교 총장취임

◇許文秀(57 경제) 서울투자금융 사장취임

◇朴相文(74 행설) 국회사무총장 취임

◇申相斗(64 법학) 서울지검남부지청장취임

◇李鍾範(63 법학) 치안본부총신부장취임

◇曹祥彬(64 법학) 부산시경제 1부장취임

◇金幸男(65 정외) 육군준장진급

◇韓世誠(67 행정) 벽산금속대표이사취임

◇康太均(68 경제) 부평야풀대표이사취임

◇李相哲(88 법학) 제30회 사법시험합격

◇金聲銀(89 무역) 관세사사시험합격



### 해를 거듭할수록 경향각

지의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게 뜻있는 결속의 자리로 그 모습을 더욱 성숙시켜 가고 있는 「東國인의 밤」이 구립 19일 17번째 행사를 가졌다.

(사진上은 축하케이트 절단, 사진中은 하와이支會회기 전달, 사진下은 연회모습)

### <공로패수여 동문>

◇崔慶植(56 정치) 인천지부 회장

◇宋祥鉉(58 수학) 수학과 동창회장

◇李鍾茂(59 법학) 국민은행동우회 회장

◇鄭珉鎬(문학) 경남지부회장

◇崔明在(61 영문) 東英會회장

◇金允光(62 국문) 천안지회 감사

◇李慶淳(64 법학) 삼복지회 고문

◇柳國衡(64 상학) 흥국생명동우회 회장

◇李元珠(65 불교) 명성여고동우회 회장

◇梁在亨(65 경영) 농경과동창회 회장

◇尹澤(66 경제) 스키 동우회 회장

◇朴相文(66 국문) 선교주동우회 회장

◇元裕亨(67 영문) 조선주주동우회 회장

◇徐昌鉉(68 경제) 보안사동문회 회장

◇李鍾植(68 국문) 천안지회 이사

◇朴省三(69 국문) 경성여중동우회 회장

◇沈在鏞(69 상학) 농업진흥공사동우회 회장

◇閔昌淵(71 상학) 럭키회재동우회 회장

◇徐承三(78 경제) 낙십자동우회 회장

## 행운상품 협찬동문

### ◇고문

▲崔載九(52 국문)

▲慎京勲(52 정치)

### ◇회장단

▲鄭在哲(52 정치)

▲文泰植(49 혜전)

▲柳根昌(49 혜전)

▲金道慶(51 정치)

▲金聖莎(53 정치)

▲洪淳浩(52 정치)

▲宋寶烈(57 경제)

▲朴泰權(75 정외)

▲具應春(75 대원)

### ◇상무이사

▲崔炳佑(63 정치)

▲金吉坤(63 정치)

▲劉基天(70 행인)

▲朴泰權(75 정외)

▲具應春(75 대원)

▲李仁禎(72 상학)

▲朴培根(67 법학)

▲李相律(57 법학)

▲趙熙榮(63 경영)

▲柳國衡(64 상학)

▲洪思賈(63 사학)

▲朴萬濟(65 경영)

▲鄭泰洙(73 행인)

▲丘在台(67 경행)

▲成百幸(66 경영)

▲孔珍植(61 경제)

▲洪正道(62 정치)

▲朴贊大(62 학자)

▲金泰佑(63 화학)

▲李允心(79 행원)

▲羅彥均(59 경제)

▲池昌勳(52 경제)

▲金容聖(63 정치)

▲崔春芝(57 법학)

▲千璣雄(60 정치)

▲裴鍾大(62 철학)

▲金泰佑(63 화학)

▲李允心(79 행원)

▲李慶純(64 법학)

▲李能熙(65 상학)

▲禹順伊(60 정치)

▲平福昌(58 정치)

▲金洛天(81 행원)

▲金昌榮(86 경원)

▲金益相(65 법학)

▲李慶純(64 법학)

▲李能熙(65 상학)

▲崔吉周(60 정치)

▲張亨植(60 정치)

▲金星台(79 행원)

▲법학과동창회(회장)

▲金東正(72 상학)

▲申相周(67 법학)

▲金正一(67 경영)

▲충남대전지부(회장)

▲朴鍾允(64 상학)

▲신탁은행동우회(회장)

▲金春鶴(65 경영)

▲농업인용공사동우회(회장)

▲鄭大鈞(63 법학)

▲한국전력동우회(회장)

▲법사단동우회(회장)

▲ 김숙수(63 경영)

▲이기화재동우회(회장)

▲金正煥(65 경영)

▲주택은행동우회(회장)

▲金正煥(65 경영)

▲한국은행동우회(회장)

▲金東英(67 경영)

▲경제과동창회(회장)

▲黃龍雲(64 상학)

▲해문회(회장)

▲柳周馨(64 상학)

▲상수회(회장)

▲金周馨(64 상학)

▲국회동우회(회장)

▲金東英(67 경영)

▲경제과동창회(회장)

▲金東英(67 경영)

▲한국은행동우회(회장)

▲金東英(67 경영)

▲한국은행동우



## 「태백산맥」3부 빛간

趙廷來 東문

趙廷來 (66國文·소설가) 동문은 최근 대학소설 「태백산맥」 제3부 전2권을 발간했다.

「태백산맥」은趙廷來의 한 국문학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로 해방후부터 6.25등 민족의 치열한 역사상황을 특유의 필치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문수보살연구」펴내

鄭炳朝 東문

鄭炳朝 (71인철·모교교수) 동문의 박사학위 논문집 「문수보살연구」발간, 출판기념회가 구립 3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관계인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대한민국 체육상 받아

嚴三鐸 東문

嚴三鐸 (75경석·국군체육부대장·육군준장) 동문은 최근 제2회 내한인 체육상 공로상을 수상하고, 부상 4백만원을 낙도어린이 체육을 위해 써달라고 27일 대한체육회에 기탁했다.

## 「내가슴속 램프」출간

정채봉 東문

동화작가 정채봉 (국문·「샘터」편집부장) 동문은 최근 「생각하는 종화」 2집 「내가슴속 램프」 (샘터사)를 출간했다.

## 한국기술공사 사장에

洪恩周 東문

洪恩周 (82원장) 동문이 구립 28일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사장으로 취임했다.

洪동문은 육사 13기로 육군의 요직을 거쳤고 陸軍大學총장을 끝으로 예편한 예비역 소장이다.

## CPA 최종 합격

박건수 東문

박건수 (86회계) 동문은 구립 28일 증권감독원의 제24회 CPA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李昌昊 (70행정·법학회이사·경주동창회부회장) = 지난 11월 30일 경주시 성근동에 볼링프라자 개업했다.

▲鄭鶴云 (70행정) = 신한증권 충무로지점 입구점지점으로 이전 개업하고 구립 19일 개점식을 했다.



▲南都泳 (52경제·모교교수) = 구립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가든에식당에서 四男相敬國 화축

▲金鉉植 (57사학·경관부) = 지난 1월 25일 광주제례회교서영애 亨宮宴 결혼

▲彌彥杓 (59경제·본회이사) = 지난 19일 오후 1시 태극당에식당에서 차녀결혼

▲정순봉 (59법학) = 구립 10월 오후 1시 동궁타운에식당에서 장녀 결혼

▲張寧植 (60정치) = 구립 17일 오후 1시 KOEX에식부서 차녀錦美안 결혼

▲金容聖 (63정치·본회이사) = 구립 3일 KOEX에식부서 잠난 天中군 화축

▲金永甫 (84체육·올림픽금메달리스트) = 1월 22일 목화에식당 진진실에서 결혼

▲이인 (87미술·원세영 미술) = 구립 5일 오후 1시 명동 YWCA에식부서 화축

#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 77년정식 발족, 매학기 3명씩 백여명 장학금지급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며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선후배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동문·교수·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와 동문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東友鼎談」을 신설한다. 그 첫 번째로 경영학과의 趙熙榮 교수와 白正基동창회장 洪守義 교수가 지난 24일 모교 경영 관리 연구소장실에서 만나다.

&lt;면접자註&gt;

▲白正基=이런 자리를 통해 민간에게 재시 텁빈갑습니.洪군이 이번 출업생인데 제일 먼저 후배들의 취업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洪守義=저희 출업생이 모두 79년에 입학이나 ROTC 등을 떠나면서 취업대상인원이 65명인데 오늘까지 58명이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趙熙榮=7명 정도가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그중에서 4~5명가량은 면접단계에 있어서 미결정지지 미취업이라 고는 할수없지요. 따라서 거의 99퍼센트가 취업이 됐다고 볼수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부연하자면, 우선 출업생들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쓴건가 정사실이고, 보이지 않게 각계 여려선배들이 이끌어준 후원의 힘이 커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58명 就業마쳐

▲白=요즘의 취업난을 생각해서 상당히 열려스러웠는데 무척 기본소식이군요.

▲洪=취업은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과 출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았던것은 무엇보다 조희영 지도교수님과 이형진조교님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됐던게 주효한 것으로 볼니다.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도 하고 일사화 회사의 최근 선배님들 도 만나 그 회사의 특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지도교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다독거려주시고, 李조교님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에 와서 커피라도 한잔씩 끓여주시면서 고충 상담해 주시고 있어서 어느때보다도 굳은 입체감을 가지고, 이기운데서 저희가 나를 대로 올바른 진로와 방향을 선택할수 있었으니까요.

▲趙=李조교가 직장경험이 있어서 신입사원이 되기까지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점도 큰 보탬이 됐어요.

또 학생들이 잘 단련이 돋아 출전서 열같이 민감하고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서로 양보하고 조교와 상의하고 지도교수의 안내를 받으면서 효과적인 원인분석을 보인결과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매학기 3명씩 장학금지급

▲白=이렇게 높은 취업률을 보인데 대해서 훌륭한 금지를 드립니다. 선배로서 조금이라도 뜨겁니다. 선배로서 조급이라도 뜨겁니다. 격려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대견하게 생

각합니다. 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하고픈 말은 맑은 분야에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면서 성취를 이루기 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학교를 떠나는 연원의 함께하는 것이므로 선후배간의 우의관계를 돈독히 해서 서로 돋고 함께를

면서 선배님에 대한 생각을 각별하게 하기 위해서 선배님들이 얘기, 경영인의 전통같은 소개해주시지요.

▲白=우리 동창회는 학창시절의 끈끈한 유대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어느 학과도 못지않은 동창회를 이끌어온게 아닌가 자부합니다. 이 중에서

### ◇참석자

▲趙熙榮 (63년卒·경영학과장)

▲白正基 (64년卒·동창회장·삼남설 유대표)

▲洪守義 (출연예정·4년과대표·H 그룹입사)



### — — 경영학과

기위하는 협체에 같은 우의를 지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경영학과동창회 장학금을 수혜받은 동문이 지금까지 어باء여인이 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더욱더 힘어서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趙=63년 출업생이 1기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블십강 면으로 도외주신 1기선배님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경영학과가 1959년에 신설되고, 신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선후배간에 우정을 둘도록 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학기 장학금



▲左로부터 白正基회장, 趙熙榮교수, 4학년 과대표洪守義。

## 趙 東國精神, 우리가 찾고 우리가 살려야

## 白 同窓會의 원동력인 참여의식 절실

## 洪 먼저 작은 일로부터 후배들에게 길 터

이번이 27기가 배출되는데 2기 가족 중심이어서 67년부터 학교장학금을 지급했고,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77년도에 점심으로 동창회가 발족돼 지금 21년째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3명씩으로 삼학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천 명이 모여서 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하는 것이 자나깨나 보람스럽게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白=물론 재학시에 장학금을 받았으니 후배에게 되돌려 줘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것이지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참여의식이 뜻이 있습니다.

▲洪=저희가 사회로 진출하-

을 보는 사회의 시각은 한마디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趙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東大출신이라는 확고한 소감과 자금성이 있었을때 우리사회가 교육출신들에게 저는 기대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 졸업생 장학금모금 화제

▲洪=최근 우리 츠는 많은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적으로 이어져오는 흐름이 있어서 우리도 선배님들 못지않게 해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유통을 모아서 얼마 안되지만 2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하고 하면서 무척 단합이 잘되었습니다.

▲趙=선배들이 고생하시니까 우리도 조그만 뒷밭침이라도 해보자고 이번 졸업생들이 謝恩會 때 장학금을 모아서 동창회에 전달했는데 참 대접스럽게 생각해요.

▲白=지난 12월에 총동창회 新年에 菲社會이 있었는데 그때 鄭在哲회장님이 이후회들의 慶談을 소개하면서 탄동창회의 귀감이 됐다고 격려해 주었는데, 제가 그 칭찬을 대신해서 받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칭찬이고 저스스로도 무척 뿐듯했습니다.

▲趙=이제洪군이나 출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경영학이 갖는 학문적 특성과 같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성과로써의 富, 사회복지의 증가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하게 되지요. 우리 출신 경영학도는 이런 노력과 함께 사회의 부가 공정하게 배분될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학과이념을 부각하고 짐작하는데 역할을 맡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白=동창회는 학교 행정의 일과 과다해서는 아 되지만 짐작부에 힘의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참여의식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부탁하고픈 말씀은

각기 직업과 생활이 다르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東國의 이름이래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 서로돕고 모교 후원하는 그런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白=지지들은 아직 과발전이나 동창회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부에서 시작해서 후배에게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이번 취업도 각 방면으로 물고두기 취업할 때에도 물고 후배들이 취업할 때에도 솔선해서 안내하고 도움을 줄 계획이고, 그런 뜻에서 작지만 장학금도 모아 보았습니다.

▲白=아마 여러분의期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기별로 단계가 되고 선후배가 한데 이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서로 도움이 있을땐 연락해서 자주 만납시다.

민족사학으로 걸어온 모교83년 역사속에서 동국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는 우리의 전통은 무엇인가. 동국의 學統을 지켜오며 후학양성에 헌신한 역대 은사님들을 회고하며 83년 전통의 뒤이길을 더듬어본다. 본보가 새롭게 기획한 '잊을 수 없는 스승'에 동문여러분의 격려와 선원을 기다린다.

&lt;편집자註&gt;

내가 日本留學을 3년후로 미루어놓고, 서울 안의 3大専門院 중에서도 엉뚱하게 中央佛教專門學校를 택하게 된 나대로의 사연은 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챤 宗敎와 佛敎宗立의 두 이질교는 조금도 배타적인 것도 이교도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의 성장과 구도적인 자체에서 있어서의 의의統一였고,兩極의 調和이기도 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한 젊은 이의 自己選擇과 책임하에 이뤄진것이며, 또 그리한 父母님의 관여의 限界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中學은 부모님의 專門校와 大學은 나자신이 선택한 것



鄭  
△38年中佛卒

璇

△58~81年도교철학과 교수  
△81~現 國光大學원 철학과 교수

이므로, 어떠한 누구도 탐할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책임전자가 불가능한, 그래서 나의 생애와 운명을 거기에 건 결과가 된 것이다. 아니겠는가.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의 확고한 意志와 진실한 態度 앞에서는 부모님의 價顧도 意執도 절로無色해지게 마련이다. 아니겠는가?

그리고 결정적 이유의 또 하나는, 평생을 공부와 독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유일한 길이란, 국가의 독립여부를 막론하고, 적어도 나에게 교단생활 밖에 앉아고 앉아학교에 다닌 하나의 숨은 이유는 당장에 서물을 떠날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크게 외질소리는 못되나 생애의 반려자에 관한 청운의 오너의 문제 곧 『天定配四』의 탐색 작업(戀愛)이라고 하는 중대사문이었다.

이리하여 中央佛教를 나의 영원한 alma·mata로 삼게 된 안락의 이유는 무척 복합적인 것 이었고, 그런대로 충분한 이것도 했다는 결론이된다. 그것은 무척 절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끌어들여, 혹시나 거기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근거가 빠져 있을 때, 이를 헤아리면 가다 들린 것이라거나, 같은 올해 없어서 밀려온데에 불과 하거나거나, 인지도 없는 베이비 착되어 버렸거나, 또는 경우에는 그것이 운명적 주체적 결합이 아니었기로, 일자 될수가 없음에, 절로 진실할수 있는 진실의 자리를 놓을수는 것인가. 결론은 산상학, 창조적이 될수 없겠기 때문이다.

나에 그때 나의 갖가지 입지조건으로 해서, 中央佛拂은 오령적인 것이었던 말이다.

刹는 하나뿐, 그래서 지금의 불교학과와 철학과와 국문학과 및 교양학부를 한 쪽을 한 것과 비슷했으므로, 나에겐 가장 매력적인 학교 수가 있었다. 어차피 대학에 가서 완성을 기할 철학과 바이어, 중학에서 뛰어진 한국학적인 것을 여기서 다시 다듬고, 小成으로 나마 결실을 보다는 것은 나에게 필히 요청직한 과정이란 믿어섰던 것이다.

그래서 졸업반 후기에 있어 서의 한 달간의 金剛山 長安寺 地蔵庵 행을 위한 유교결석을

많은 恩師님들이 幽明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견재하고 계시는 분은 金博士님의 오신 國文學의 玄巴 李東薰(당시의 성함은 이유복) 선생님뿐이다. 하기야 나自身이 벌써 그때의 승승들의 나이보다 연배가 되었으니 어찌하라. 「歲月無情老丈夫」라더니, 밥낮으로 흥르는 江曠기처럼 年年歲歲 흥하고 또 흘러서, 오고 또가 모양이다.

또 東國大學校 100주년을 맞는 21세기의 6년째가 되는 해

을 전해들은 것도 그무렵 그분으로부터였다.

合祀 直後(1911), 海印寺 주

지로 있던 李晦光 일파가 우리 佛敎를 日本의 曹洞宗(曰僧道元의) 祖師로서 禪宗 五家의 하나과 강제결혼 시키는 親曰의 음모를 꺼자, 石頭은 吳惺月, 韓龍雲等들과 손을 잡고 隆濟宗(선종: 五家중의 하나)의 정통론을 내걸고 이를 성공적으로 저지시키기도 했는데, 그분의 어디에 그려한 志士인 기개가 짓들고 있었는지, 우리로선 생각도 못

어 보라고 한 다음에는 언제나처럼, 빛난지, 갑았는지 조차 모를 심상 같은 두눈을 아주 깁아 버린 채로, 불쌍히 그것을 들이라고 지었다. 말인가!라고 총평해 놓고 나서, 『그중에서는 춘원 것이 낫네만, 『이』라고 불붙였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은퇴, 六堂, 碧初(1888~1968), 義堂等人才들이 동석해 있었고 한다.

그리고 뜬 눈인지, 깃은 눈인지가 구별 안 되듯, 걷는 건지, 서 있는 건지를分辨할수 없을 정도의, 불변 날라갈 듯한 그의 모습은 바로 仙人의 그것이었다.

退耕樓相老(1879~1965) 선생님은 특히 나에게 친근감을 주신 분으로, 어려워하는데, 朝鮮佛教史와 朝鮮文學史의 講義는 해박한 知識를 종횡으로 구사한 天下의 명강의였다고 회상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가 그분 만큼 講義에 열성적일 수가 있을까. 그 꽉짜금직한 단필로 손수 프린트를 하셔서 우리들의 教導에 정열을 다 쏟으셨다.

뒤에 東大初代(1952)總長을 역임하셨고, 1962년에는 명예 哲學博士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축하식전에서 『60년 전 스물 세살의 젊은 기분으로 앞으로의 餘生을 震상 머리에서 보내렵니다』라는 유우며로 一場을 웃음판으로 만든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가 83세였다. 나에게 한지기 한 스티커를 것이 있어 後悔莫及이다. 여성을 책상머리에 앉아 계설하고 論語講讀의 시간을 외에 마련하지 못했던 라는 것이다. 내가 편집했던 水落山房의 풍인지였던 『*II*』의 题號를 써 주셨고, 山의 字原풀이를 기록적으로 해주신 바도 있으나, 더욱 가까이 모셨더라면, 나의 <論譜> 수업에도 큰 빛이 띠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한 그분에게는 일화도 많다. 언제나 지금의 승복차림 아닌, 베선에 고무신을 신으셨는데, 일년 열두달 걸친 투무하기에는 날씨 따라 토시를 애용하셨고, 그 토시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흔히 그랬던 것처럼 번지르르했다. 눈물이나, 언제나 끼어 있는 눈물, 그리고 뜯을까자, 으레 기가 속삭여 문지르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토시는 실로 손수 전처처럼 편리한 다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해 놓고 도 언제나 상긋 웃으시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적인 冷溫感覺이 없으신 분이리라. 그걸 감이 좋을 때 죽간에서 잡수시키기 일쑤요, 또 그려가 하면 開運寺의 한 제자인 金相基군은 한량이며 나의 동창이기도 한데 스님이 새벽녘에 참선하

는 그분은 당시에 힘을 들이셨다. 그분은 당대의 대학僧俗계 남카로운 지성과 賛의 경지를 번득이시며, 벌로 웃으시는 일도 없이 옛哲人们처럼 차갑게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섬인 낭랑한 목소리로 피로를 모르는 명강의를 하셨다.

나는 그때 『Anuttara-samyak-sambodhi』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적 넘겼지만, 包光스님자신이 바로 그 경지에 오른분이 아니신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玄石 金彷石 선생님(1900~65)은 위 세분과는 달리 日本語로 華嚴學 講義를 하셨는데, 그것은 全羅人 特有의 風流어린 멋을, 그 음성이나 제스チャー에서 담백 풍겨 주시어 可謂天下一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어느날 칠판에 『照願脚下』라고 쓰셨다. 아마 이것이 華嚴精神이요, 나아가서는 불교의 근본원리였는지도 몰랐다. 그분은 우리 學年的 지도 교수로 섭렵했기도 각별한 사제간이기도 했는데, 아무런 보답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적이 이 應스런 생각이다.

## 잊을 수 없는 스승

### 나의 alma·mata, 中央佛教 專門學校



▶退耕樓相老 선생

제외하고는 열심히 듣고, 읽고 생각하고 쓰고, 또 사립하고, 사귀고, 또 받는 학생일 수 있었다. 미래에의 목표가 뚜렷했던 단률 좌우무현하거나 우왕좌왕할 겨울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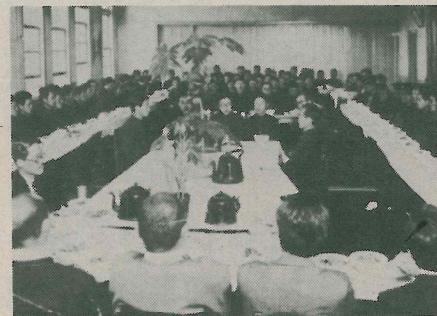
입학초의 어느 날 나는 沔東金斗憲(1903~1982) 교수님께 제가 이러한 목적인데 이교학에 들어온 것은 잘한듯인지 의문입니다라고 여쭈어봤는데 하시는 말씀이『잘 들어오고 끌고 서울에 세 전문화교가 있지만, 君의 뜻을 채워 출간한 학교가 여기를 내놓고 어디 또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단은 그 렇다. 高麗大의 선신인 普成전 문은 法과 商이 主業이고 延世大전신이 延禪惠門은 藏書과 文學을 특색으로 했고 성균관과의 前身인 明倫書門은 침립전 이었으므로 어디에도 哲學의 안

에는 또 古今의 哲學科生 某君이 우리를 두고 이런 글을起草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나와 그가 또 幽明을 달리하고 있을 것이 엄연한 그날의 일들을 전한하노라며 헛되이 서글프기만 한 것도 아님성 싶다. 그 때의 학감은 金倉注교수님이었다. 그 간간한 선비풍의

할 정도로 그이는 너무나 청순하고 온유하기만 했다. 『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라고 孔子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경기는 바로 이분이 두고 이른 말인 둘 식운 이문이 시운이었으며, 쉬운 말로 生佛이 명명했다.

그러한 그분에게는 일화도 많다. 언제나 지금의 승복차림 아닌, 베선에 고무신을 신으셨는데, 일년 열두달 걸친 투무하기에는 날씨 따라 토시를 애용하셨고, 그 토시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흔히 그랬던 것처럼 번지르르했다. 눈물이나, 언제나 끼어 있는 눈물, 그리고 뜯을까자, 으레 기가 속삭여 문지르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토시는 실로 손수 전처처럼 편리한 다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해 놓고 도 언제나 상긋 웃으시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적인 冷溫感覺이 없으신 분이리라. 그걸 감이 좋을 때 죽간에서 잡수시키기 일쑤요, 또 그려가 하면 開運寺의 한 제자인 金相基군은 한량이며 나의 동창이기도 한데 스님이 새벽녘에 참선하



▲당시의 졸업생 사은회 광경(1938)

### 讀書力, 기억력 비상...참선시엔 後光이

### 조선佛教史, 文學史는 天下의 名講義

식처는 없었으니 말이다. 나의 판단은 옳았고 동시에 한분의 스승을 모시게 된 셈이다. 韓國의 博士 제1호이신 예동(湧東) 선생님을 나는 고등보통학교 때 초안원을 이룬 YMCA 강당에서 봤던 적이 있다. 스피노자(Spinoza, 1632~77) 탄생 3백 주년을 기념하는 講演會의 한 演士로 나오셨으므로, 초면이 아닌 쌔이었다. 그이는 3년간 哲學과 倫理學에 관한 대부분의 과목을 담당하셨으므로, 나의 哲學修行의 초기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최초의 스승이시다.

학승은 강의도 그러려니와 교류 행정도 관업의 과부족없이 원만하게 해내신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특기해야 할 부분은 교장이신 朴漢永 선생님, 조선조말의 고승대여의 한분이신 石顛(1870~1948) 선생님이다. <抗頑>강의로 우리나라를 품은 그의 童頑에 그 할 수 있었는데 그童頑에 그童笑는 無碍의 범주를 자주자재, 종횡무진으로 노는 분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또 전형적인 全生 사투리의 강론인가가 구불그의 강의는 구수하고도 설득력이 있었다. 『莊華微笑』의 소식

고 계시는 자리의 뒷켠에는 가끔 後光이 떠 오르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거기다 독서력과 기억력도 비상하여, 몇몇 몇장 몇절 몇행 어느 면에 그 구절이 있지 않더니?라고 지적해주는데는 당대의 선학들도 꼽짝달싹을 못 했는데이기다. 당시의 인재가 자주 스님을 찾아뵙고 問學했다고하는데, 어느 날에는先生께서 『자네들, 글재주가 제법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한번 읊어 보려는가!』라고 하시며, 韻을 내놓았다. 即興漢詩가 작성되는 대로 일



# 함께서기, 새해동국인의 과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지난 무진년은 본회와 교교도문화와 발전의 계기가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창회와 교교의 지난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신년동국을 전망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잠재돼온 동국의 역량을 점검해 유행으로 표출하고자 지난해 본회는 동문조직 강화와 단결에 최여점을 두었었습니다. 일화적으로 기존 단위동우회의 전면재파악 및 활성화, 지부·지회설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시난해 동문소식강화 역점

—동문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동창회의 사제역할이 그치 강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도 사실입니다.

역시 동창회의 발전은 전체동문의 참여와의 예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해 하며 군요.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생력을 갖추고 자립해나가야 할 본회로서는 동문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내야 할 것입니다.

## 주체적인 참여 유도해야

—회비납부 현황만 보더라도 동문들의 참여가 아직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난해 예산상의 문제로 동국인명록발간이 지연된 것은 참안타까운 일이지요.

—본회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관리구조진전과 함께 활동할 때가 아닌 생각합니다.

—작년 2억 원을 넘어서 회관건립기금도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회관건립계획 구체화할 때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여겨집니다....

—올해에도 13대 회장선에서 동문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17명의 동문위원이 당선되고

만 후배들은 실력을 계속 쌓아서 전문경영인으로 진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관에서의 동국의 위력은 높일 정도입니다. 현역대학총장이 5명이나 되고 각 학회임원에 교교출신이 대거 피선되었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동문들이 동국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올해에도 동문들의 이러한 활약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단위동우회의 활동은 어떠했는지요?

## 동문재파악·조직 강화·동우회 창립 등에 노력

## 새해에는 참여와 단결하는 동창회 되어야

교부의 중진을 배출시킨 일은 자랑할만 하지요.

—체육계동문들의 활약도 눈 놓지 않습니다. 연초 중계오픈에서도 시범종목 금메달을 단테이어 서울올림픽에서 金·銅2개를 따내 동국자력을 과시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를 격려하기 위해 제1회인 「발」을 열고 동국문화상을 시상하기도 했지요.

—금융·실업계에서도 많은 동문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다

## 각계동문활약 눈부셔

—경남지부, 대백시지회 등 8

개 시·부지회가 정립되고 기존 단위동우회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회보를 반간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활동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각급 단위동우회도

되고 있는데 국내외지 않게 교회이 큰 해외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申甕炫사부 국장의 미주지부순방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교교는 많은 진통을 겪었다는데....

—그동안 어두웠던 시대상황 속에서 학원이 자율이 침해됐던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진통의 결과로 동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교의 학내분구과정에서 동문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부족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곧 구성될 「동국발전위원회」는 동문들이 학교와 함께 모교발전을 속히하는 자리가되어야 하겠습니다.

## 교교발전에 동문관심 필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교의 양적인 발전은 대단했었습니다. 재학군인회관미일·외대별원신축·포항병원인수·단대광장·원공·대학신설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앞으로는 양적발전 못지않은 질적인 발전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창간 11주년을 맞는 본회는 이제 동문들에게 단순히 동창회와 교교의 소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동문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올해는 東國中興의 元年

—그래서 새해부터는 교교의 옛선통을 되살리고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문들의 전체의견을 수용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요.

—이제 東國 1세기를 앞두고 전국민의 참여와 단결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국은 모두 하나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를 東國中興의 元年으로 민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한다고 괴리.

「강충강충」 선배와 「강충강충」 후배가 한몸이 되어부터 「월월」 날마다 주시길 본동동동학수고나입니다.

## 「따뜻한 남쪽」소식

○...교교 체육부 후배선수들이 동계전지훈련차 「따뜻한 남쪽」으로 대서 이동해 전력을 기다리고있으며, 지역동부들이 이를 찾아가 일일이 격려를 해주고있다는 흐뭇한 소식.

후배 여러분, 올해엔 좋은 성적 거둬서 함상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선배님들께 즐거운 승전보를 한마음씨 전해주세요.

## ”올해도 동국인의 승승장구를,

### 同門여러분의 발전을

○...새해엔 늘 福을 많이 빙아내(?) 한다고해서 신년 음식점중에 「복집」이 대성황을 이루는데.... 우리 동문들이 누리야 할 복은 다른아닌 「동국인의 긍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동문들이 잘되고 교교가 잘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동국인임이 자랑스럽고 남다른공지를 느낄수 있도록 기사년한해 동문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 「강충」先輩와 「강충」後輩

○...그간 여러사정으로 소원했던 본회와 총학생회간의 대화의 장이 구립 28일 솔리산 학생간부 수련회에서 오랜만에 마련돼 선후배간에 격의없

는 대화를 가졌다고. 여기서 본회 신임한사부국장은 「우리가 배울만 산토끼가 「경충강충」 뛰었는데요즘



東同運動

東同大學生聯合會

東同大學聯合會

# 洪性裕 人生劇場

# 將軍의 이들

\*전6권 흥행!  
출간 170일만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끌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6권 완결!**

**홍성유** 인생극장 (将軍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홍미 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경직한 입장,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키호테의 진지한 대부분의 균형으로 빼았길 땅에서 주먹제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펑박방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늄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애심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솔직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già이온 근대 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게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돌본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숨한 사람 들, 이땅을 강탈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뱅이! 접대부를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성적반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판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전6권·국판·각권 300면내외/각권 값 3,300원·날간판매·\*서점에 있습니다.

NORTHWEST

**미국여행—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 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PASSES**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